



영웅호걸 CBS노컷뉴스 기자가 되다

노사연, 나르샤, 유
이나, 지연, 아이유, 정가은, 이진, 신봉선, 박가희,
홍수아, 니콜, 이휘재, 노홍철이 취재 현장에 나섰다. 노컷뉴
스 특별기자가 된 이들 sbs 영웅호걸 멤버들은 지난달 25일, 26일 이틀에
걸친 밀착 취재를 통해 '연탄형제의 삶'과 '경찰관의 24시'를 생생하게 전했다.
노사연, 나르샤, 유이나, 지연, 아이유, 이휘재 팀은 밤을 꼬박 세우며 달동네에 연탄
을 배달하는 두 형제의 이야기를 따뜻한 감동으로 담아냈고 정가은, 이진, 신봉선, 박가
희, 홍수아, 니콜, 노홍철 팀은 성동경찰서 경찰관의 하루를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노컷뉴
스는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 사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소망을 더해, 조금
은 부족하지만 이들이 직접 작성한 기사를 지면에 소개한다.

“자기 몸 태우며 희생하는 연탄처럼, 어려운 이웃에 힘이 되고 싶어요”

달동네 골목 누비는 ‘연탄검댕’ 천사들

지난달 25일 오후 11시경 서울시 노원구 상
계동 어느 달동네. 행여 주민들의 잠을 깨울까
조용한 발걸음으로 연탄을 배달하는 장희남,
장희준 씨 두 형제를 만났다.

어두운 밤과 검은 연탄들 사이에서도 두 형
제의 눈빛과 외모는 빛났다. 갑작스레 찾아온
한파에도 형제는 외투 한 장 걸치지 않고 묵
묵히 연탄을 날랐다.

벌써 6년째 연탄배달을 하고 있다는 형 장
희남 씨는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겨울엔 연
탄배달을, 여름에는 전공을 살려 사물을 보수
보강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독거노인 분들이나 어린 소년소녀가장들
중에 서류 한 장, 글씨 몇 글자에 묶여 법의 사
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
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싸고 따뜻한 연탄을
배달하는 거죠. 무엇보다 배우는 것이 많아요.
이제는 서로 친해져서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
주시는 분들을 볼 때 보람되고 힘이네요.” “자
기 몸을 태우며 희생하는 연탄처럼 연탄이 없
어질 때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계속 힘이
되고 싶어요.”

새벽녘에 집에서 출발해 다음 날 새벽에야
집에 돌아간다는 형제는 배고픔도 추위도 잊
은 채 트랙에 실고 온 연탄 1만3000장을 모두
배달한 후에야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6년째 연탄배달 장희남·장희준 형제 소외계층 ‘사랑배달부’
연탄은행 자원봉사자도 늘어... 등짐 지고 수레 끌며 구슬땀
‘쪽방’ 할머니 미소에 “건강하세요” 화답 뒤돌아선 찡한 눈물

기복 목사님을 비롯, 광동제약 직원들은 바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추워진 날씨에 장갑을 꺼도 손가락조차 움
직이기 힘들었지만, 봉사를 온 김태욱(26) 씨
는 “올 1월에 결혼한 신혼이예요.(웃음) 2006
년부터 4년째 해오는 일인데 배달을 가면 친
아들 같으며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어머니를
보면 너무나도 보람되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허기복 목사님과 광동제약 직원들은 계속
되는 연탄 운반에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내
내 웃으며 일했다. 요즘은 유학을 가 있는 학
생들도 봉사를 하고싶다고 연락이 온다며 하
루하루 늘아가는 봉사자들을 보면 기쁘다고
한다.

우리가 따뜻한 보일러에 부족함이 없고
있을 때, 연탄 1장이 부족해 추위에 떠는 사
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에 가슴은 아팠
지만, 이른 시간부터 사랑을 배달하는 사
람들을 보니 ‘아직 세상은 살만 하구나’
따뜻함이 느껴졌다. 많은 이들의 사
랑으로 데워진 아랫목은 높은 빌
딩숲에 가려져 달조차 보지 못
하며 사는 우리에게겐 그 어떤
보일러 보다 뜨거웠다.

그들은 오늘도 사랑
을 운반한다.

노사연, 이휘재, 나르
샤, 유이나, 지연,
아이유, 노컷
뉴스 특별
기자

그러나 요즘은 연탄 후원자들과 봉사자들
도 많이 늘어 기쁘다며 다음 날 연탄은행에서
있을 ‘무료배달’을 기대하고 있었다.

다음 날인 26일 오전 7시, 이른 시작이지만
이미 도착한 자원봉사자들의 웃음소리와 온
기가 이미 문 밖에서도 느껴진다.

2002년부터 시작한 연탄은행. 27만 가
구가 아직도 연탄을 소비하며 생활
한다.

3장이면 따뜻한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사람
들을 위해 허



범죄없는 세상 위해 ‘불철주야’ 경찰서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지난달 25일, ‘SBS 영웅호걸’의 기자들
이 최일선 현장에서 민생치안에 애쓰고 있
는 한국경찰을 만났다.

노홍철, 정가은, 이진, 신봉선, 박가희, 홍
수아, 니콜이 노컷뉴스 특별기자로 서울 성
동경찰서에 찾아가 경찰관의 24시를 밀착
취재했다.

경찰의 하루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길었
다.

먼저 112지령실에서는 인공위성을 통한
IDS위치정보시스템이 30초마다 순찰차
위치를 알려줘 사건 발생시 신속하게 출
동, 민생치안에 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
었다.

절도, 강도, 강간, 조직폭력범죄, 마약범
등 위험범죄를 책임지고 있는 강력반에서
는 24시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30년 경력
의 차장진 반장 지휘아래 15년 경력의 이
현수(40), 김익수(38), 유창민(30) 형사가
당직을 서고 있었다. 이현수 형사는 마약
사범 체포 때 범인이 휘두른 흉기로 인해
얼굴의 상처가 생겼는데 흉터라기보다 영
광의 흔적으로 보여졌다.

다음에 찾아가는 곳은 과학수사대(CSI).
우리나라 과학수사대의 능력은 상위권에
속한다. 미국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지
만 DNA검출 같은 기술이나 분석력
등 전체적인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
에 올라 있다고 한다. 과학수사대
는 모든 사건현장에 먼저 도착
해 범인의 증거물을 찾기 위
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 ‘SBS 영웅호걸’
노컷뉴스 기자팀은
매일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어지는 음주
운전단속



추운 날씨 새벽까지 음주운전 단속
“사건사고 없는 따뜻한 사회 됐으면”

현장을 취재했다. 경찰관들은 추운 날씨에
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에 귀가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겨운 모르고 일
을 하고 있었다. 차장을 넘겨 새벽 2시에
끝난 음주단속차는 다행히 주말보다는 훨
씬 적은 2명이었다. 경찰관들은 “음주운
전은 내 안전과 가족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
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니 절대 음주
운전을 하면 안된다”며 당부했다.

모두가 피곤한 새벽 시간이지만 경찰관
들은 그대로 파출소로 돌아가 오전 9시까
지 또다른 임무를 봐야한다며 경찰서로 복
귀했다.

취재를 마칠 즈음 강력반 차장진 반장은
“사건사고가 많이 줄어서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현장에서 느껴
왔던 간절한 희망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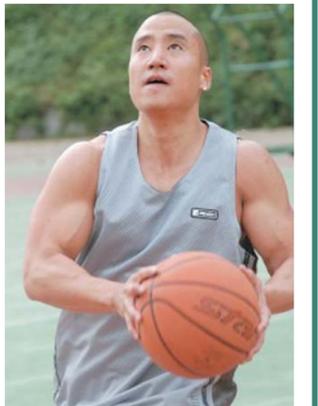
‘영웅호걸 기자’들이 만나본 경찰관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
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우
리가 잠을 잘 때도 마음 편히 쉬는 공유일
에도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에도 365일 때
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들은 항상 시민
의 곁에 있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위
험을 무릅 쓰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희생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보면서 ‘배려
와 존중의 문화를 깨우쳐 줘야 따뜻한 시
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노홍철, 정가은, 이진, 신봉선, 박가
희, 홍수아, 니콜 노컷뉴스
특별기자

168cm ‘작은 거인’ 이항범 프로농구 향한 제2의 도전

방배동의 한 고시원. 좁은 복도를 지나
2평 남짓한 방안에 들어서니 긴장한 청
년이 책상에 앉아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
를 하고 있다. 작은 키라고는 하나 30대
남성 한 명만 들어와 있어도 딱 차는 방.
한 때 화제의 주인공이었지만 이제는 잊
혀진 비운의 농구 선수 이항범(31).
CBS TV ‘블로그다큐 예수와 사람들’은
3일과 4일 자정에 2회에 걸쳐 이항범의
삶을 밀착 취재, 방송하고 있다.



■ 농구계의 신데렐라에서 풍운아로, 그
리고 6년 후

프로농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2004년 신인 드래프트의 주인공
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1라운드 1순위로
지명 받았던 양동근보다 더 많은 화제를
불러일킨 선수가 바로 이항범이었다.
그는 168cm의 초단신으로, 그것도 대학
농구선수 출신이 아닌 일반인 자격으로
2라운드에서 지명을 받았다.

밸런트 이병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
려져 더욱 관심을
모았던 이항범은 이
후 KCC에 입단하
여 일약 ‘프로농구
의 신데렐라’로 불
렸다. 일간신문의
스포츠면 뿐만 아
니

2004년 일반인 출신 프로지명 스타덤
선수등록 한달 앞두고 ‘포기선언’ 화제
경제적 어려움에 고시원 생활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꿈 “나는 농구선수다”

라 사회면에도 ‘인간승리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천국에서 낙으로 떨어
지는 것은 순식간. 선수등록을 불과 한 달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프로진출
포기 선언은 농구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리고는 “그릴 줄 알았다” “그것도 버티
지 못하면서”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KBL 규정에 따라 5년 동안 프로 입단
이 금지됐고 이항범은 길거리 농구 등 ‘언
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며 농구의 명맥을
이어간다. 그 와중에 또 다시 찾아온 시련
들. 자신의 최대 지지자였던 어머니가 200
5년 뇌출혈로 쓰러졌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 닦지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의 현장에서
좁은 고시원 방으로, 이항범의 현 주소다.

■ 절망하지 않는 긍정의 ‘에스맨’, 또 다
른 도전에 나선다

한 때의 성급한 판단으로 많은 것을 잃
어

게 된 이항범은 절망하지 않았다. 신앙으
로 마음을 다잡으며 매일 웨이트 트레이
닝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현재 작은 유스
니스스포츠센터에서 초등학교생에게 농구를
가르치고 교회에서 농구로 봉사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부터
프로농구 2군 드래
프트에 참여하고
있다. 두 번 떨어졌
지만 드래프트 참
가 동영상인 인터
넷에서 퍼지면서
다시 화제를 일으켰다. 이항범은 내년에도
또 도전을 할 생각이다. 단 1분이라도 프
로 코트를 밟아보고 싶은, 그 위에서 땀
흘리고 그 위에 쓰러지고 싶은 바람. 자
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쓰러진 어
니를 위해 불가항할 것만 같은 일에 도전
하는 이항범.

“서른을 넘긴 나이에 6년의 공백기...
다시 프로에 도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
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168cm 단신에 고
졸 출신이 프로에 입단했던 2004년의 일
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
는 기도하면서 계속 도전할 겁니다.”

그가 다시 프로농구 무대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여
전히 “나는 농구선수 이항범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블로그다큐 예수와 사람들’
-나는 농구선수 이항범이다’ 편은 농구
선수이길 포기하지 않은 이항범의 모습
을 보여준다.

오미정기자 omj@mcbs.co.kr

CBS TV의 ‘블로그다큐 예수와 사람들’은...



블로그와 다큐멘터리가 결합된, 이른바
블로그멘터리(Blogumentary)라는 새
로운 형식의 2부작 휴먼 다큐멘터리다.
블로그적 속성인 1인칭 작가적 시점의 스
토리텔링으로 진행되는 이 블로그다큐는
제작PD의 눈을 통해 주인공의 삶을 해석
하고 바라본다. 더불어 제작진은 프로그
램 블로그를 운영하며, 방송제작 과정은
물론 그 뒷이야기, 그리고 PD의 생각 등을 적어가고 있다. ‘블로그다큐 예수와
사람들’의 블로그 주소는 <http://blog.daum.net/blogumentary>